

Transport Valuechain Daily



2023. 10. 24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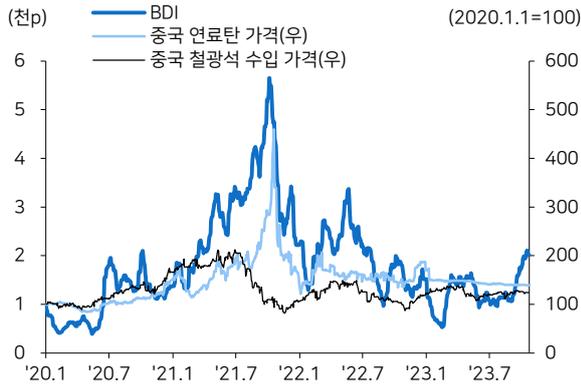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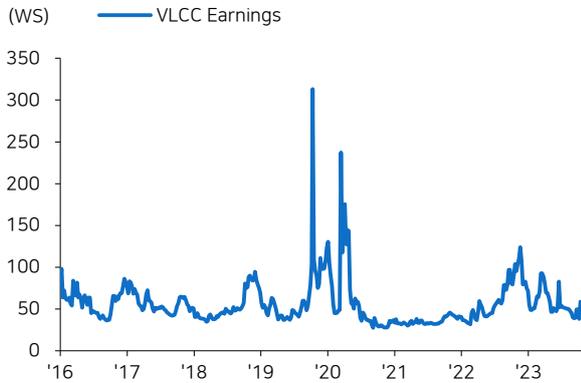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17.0p(-2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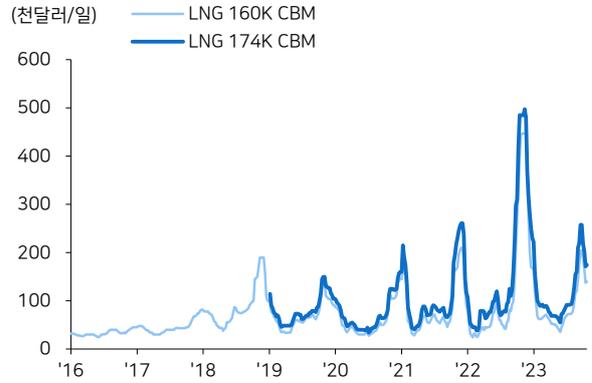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17.7p(+26.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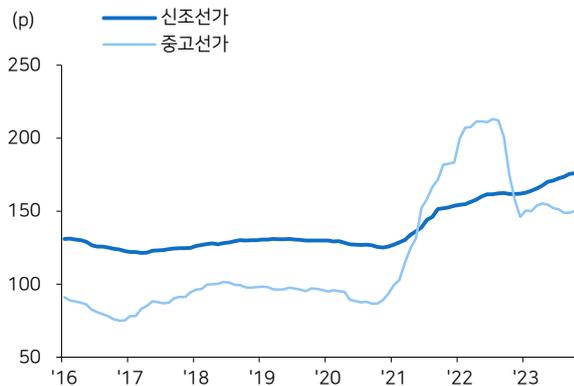
VLCC Spot Rate 55.4p(-3.4p WoW)



LNG Spot 운임 140.0천달러(+2.5p WoW)
175.0천달러(+3.8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5.9p(+0.3p WoW)
150.1p(+0.7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8.0달러(-4.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대한항공, 이사회서 '아시아나 화물 매각 시 고용 유지 지원' 검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인수 측이 고용 유지와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됨. 위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의서를 오는 30일 오후 이사회에 상정한다고 언급됨.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화물사업 분리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합의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짐. (조선Biz) (<https://t.ly/-6hwo>)

안팔리는 아시아나 화물...티웨이도 불참

티웨이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인수전에 참가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됨. 선두 LCC들이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항공화물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짐. (서울경제) (<https://t.ly/xBwOq>)

Two shipowners shortlisted for Poland's first FSRU newbuilding

폴란드 Gaz-System가 첫 FSRU를 발주할 두 개 선주업체를 추렸다고 보도됨. BW LNG와 Mitsui OSK Lines가 경쟁 중으로 알려짐. Excelerate Energy, Hoegh LNG, Exmar-한화오션 등은 최종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고 알려짐. 최종 결정은 연내 이루어질 예정으로 알려짐. Gaz System이 요구한 인도기한은 2027년 8월로 알려짐. (Tradewinds) (<https://t.ly/Nu0xk>)

Outages hit Norway's gas output for September

노르웨이의 9월 원유 및 가스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도됨. 설비가 가동 중단되어 가스는 전망치인 319.1MMcmd(일일 백만큐빅미터)를 하회한 199.8MMcmd였고, 원유 생산량도 전망치 1.73MBPD를 하회한 1.64MBPD로 언급됨. (Upstream) (<https://t.ly/CTD68>)

Gazprom secures increased gas supplies to China

러시아 Gazprom이 푸틴의 방중 이후 2023년 천연가스 공급량을 소폭 늘렸다고 보도됨. Sila Sibiri1 파이프라인을 통해 추가 6억 CBM을 2023년내 공급하기로 했다고 알려짐. 추가 공급량은 2023년 계약된 물량의 3% 이하 수준으로 언급됨. (Upstream) (<https://t.ly/uXZ4Q>)

Gazprom secures increased gas supplies to China

IEA에 따르면, 2030년 파리기후협정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연간 6천억달러를 투자해 2040년까지 8천만km의 전력망을 추가하거나 개조해야 친환경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도됨. 현재 친환경 에너지에 더 큰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됨. 현재 전력망 투자액은 연간 3천억달러 수준에 그쳐있다고 알려짐. (Upstream) (<https://tinyurl.com/k89n3czt>)